

광양국가산단 출·퇴근 시간 줄었다

신호체계 변경, 제철소 진·출입 방식 개선

부두사거리~제철소 1분, 평균 10분 단축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가 신호체계 및 제철소 진·출입 방식 등을 개선해 광양국가산단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출퇴근 버스 운영이 제한되고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5부제 적용이 임시 해제돼 광양국가산단근로자 출퇴근 교통량이 2020년 4월 4,700대에서 지난해 11월 7,800대로 6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제철소 내 시설투

자 확대로 공사 화물차량의 통행이 2020년 4월 405대에서 지난해 11월 936대로 130% 증가해 기자재 검수를 위한 화물차량 대기행렬이 기자재반입센터부터 제철소 1분 앞 사거리까지 이어져 출·퇴근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함께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과 정체 원인을 장기간 면밀히 분석했고 즉각적인 불변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실시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개선방안을 도출해 추진했다.

늘어난 교통량에 맞춰 7개 교차로의 제철소 1분 방향 신호시간을 연장하고 출입증 발급 절차를 개선해 포스코 임시근로자들의 출입증 발급시간을 단축했다.

수년간 교통흐름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기자재 반입센터 화물차량 정체는 검수인력을 확충하고 도급자재 검수장소를 제철소 부지 내 200m 안쪽으로 옮겨 화물차 대기행렬이 1분 앞 사거리까지 이어지지 않게 했다.

개선 결과 하루 평균 출·퇴근 차량 통행시간이 지난해 10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 컨테이너부두사거리에서 금호교차로를 거쳐 제철소 1분까지 평균 통행시간이 29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됐고, 컨테이너부두사거리에서 길대교를 거쳐 제철소

1분까지는 평균 통행시간이 28분에서 18분으로 감소했다.

박양군 교통과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히 개선했다”며 “1분 앞 우회전 가감속 차로 설치, 기자재 차량 전용도로 확장, 기자재 반입센터 신설, 출입증 발급 키오스크 도입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진월-광영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2025년 준공되면 진월-광영 간 교량 건설로 출·퇴근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흐름이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곡성깨비정식’ 먹으러 오세요”

유명 셰프 개발...석쇠구이·멜론 장아찌 등 풍성

곡성군이 지난해 유명 셰프와 함께 개발한 곡성읍권 대표 먹거리 ‘곡성깨비정식’이 지역 음식점에 출시돼 호평을 받고 있다.

곡성깨비정식은 곡성읍권 대표 먹거리 개발에 참여한 3개 음식점 중 ‘메란명가’에서 첫선을 보였다. 깨비정식이라는 이름처럼 도깨비방망이 중·장기적 개선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메인 요리인 흑돼지 석쇠구이는 흑돼지의 쫄깃함이 석쇠구이의 은은한 불향과 어우러져 더욱 맛있습니다. 불판에 함께 구워 먹는 토란대 구이는 단맛과 짠맛이 부드럽게 조화됐으며 독특한 식감은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풍미를 더해준다. 여기에 알싸

한 향이 스치는 와사비 물김치가 자칫 기질질 수 있는 입맛을 깔끔하게 정돈해준다. 아울러 아가멜론 장아찌와 신선한 야채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한다.

고기를 적당히 먹은 뒤에는 오색빛깔 다양한 야채, 고소한 참기름과 양념장을 버무려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감칠맛 나는 토란 된장국도 식욕을 돋운다.

아직 출시 초기이지만 곡성깨비정식은 지역 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방문객들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으며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메란명가 대표는 “곡성깨비정식은 곡성의 맛을 담아낸 건강한 한 상이다. 많은 분이 곡성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여수, CCTV통합관제센터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31명의 관제요원이 올해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고용안정화를 통해 안정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31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소양교육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정규직 직원으로서의 소양 교육 시간을 가졌다.

공배철 관제PM은 “정규직이 돼 너무 기쁘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철저히 근무에 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현장 발견뿐만 아니라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 관제하며, 지역 경찰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고흥군이 금산면 연흥도에서 스마트 연흥센터 및 연흥마을회관 합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스마트 연흥센터·마을회관 준공

관광안내소·로컬푸드 판매장 등 갖춰... 삶의 질 향상 기대

고흥군이 최근 금산면 연흥도에서 스마트 연흥센터 및 연흥마을회관 합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연흥센터 조성사업은 마을이보유한 관광자원과 첨단기술을 연계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로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돼 추

진됐다. 이번 사업은 개소당 국비가 6억 원 지원됐으며 고흥군은 총 12억7,700만 원을 투입해 1층에는 관광안내소, 로컬푸드 판매장, 4D 해저 체험관을 마련했고 2층에는 뮤비컬처 플랫폼과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연흥마을 회관은 33년 전인 1989년에 건축돼 낡아 그동안 주민들의 쉽

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흥군은 사업비 2억4,000만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94.40㎡ 규모의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 연흥센터와 연흥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주민이 행복함 섬, 사람이 찾아오는 활기찬 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보성, 가축분퇴비 추가공급 8억 추가 확보

보성군이 가축분퇴비 예산에 군비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31억8,47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국비 예산이 연평균 16% 넘게 급격히 감소해 농가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비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가축분퇴비 신청 농가에 자체 예산으로 선정하지 못한 전량의 50%인 40만 톤을 추가 지원하고 국비 예산 감소

로 줄어든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군비로 충당해 농가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속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에 대해 1포대(20kg) 기준 군비 800원을 정액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가축분퇴비는 관내 생산제품 1,000원, 관외 생산제품 700원으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리부트 보성 3·3·3’ 비전 선포식

보성군이 3일 군청사 벽천분수에서 2022년 보성군을 이끌어갈 ‘리부트 보성 3·3·3’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보성군의회장,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안시영 조합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리부트 보성 3·3·3’ 비전의 첫 번째 3은 지난해 비전으로 제시됐던 1조 원 규모의 3대 SOC 프로젝트 5대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두 번째 3은 세계를 향한 3대 도전으로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개최, 세계습지의 날 성공개최,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 세계문

화유산 등재 도전이다. 마지막 세 번째 3은 보성군 3대 주력 특산물인 보성녹차, 벌교고막, 보성키위 적극 육성이다.

보성군 농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조형물 제작식과 함께 추진된 보성군 비전 선포식은 조형물 제작과 같이 추진됐다.

보성군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현행 행사로 마무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2년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해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여수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쌀 24포 후원

여수시 중앙동 새마을부녀회가 최근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 모여 ‘사랑의 백미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후원한 백미 24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은덕 부녀회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동 새마을부녀회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마을 경로당 등 취약지역 청결활동과 저소득층 미용 봉사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작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양 금호동 사회단체, 대청결 활동

광양시 금호동이 최근 이순신대교 아래 공원과 도로변에서 10개 사회단체와 청결 활동을 펼쳤다.

청결활동은 금호동동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단체별로 구역을 나눠 진행했다. 청결 활동은 길대교에서 이순신대교 올라가는 도로변부터 이순신대

교 풍치순, 제철소 입구 등 이순신대교 아래 공원과 도로변에서 진행됐다. 김성수 금호동장은 “청결활동에 참여한 사회단체 덕분에 금호동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 장애인 활동 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민연금공단이 2년마다 평가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실시한 서비스품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4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7년

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해 왔다. 김철호 센터장은 “현장에서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는 활동지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